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10.(수) 06:00 < 12. 10.(수) 석간 > 배포 2025. 12. 9.(화)

5극3특 지역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외국인투자 적극 활용

- 산업부,「제3차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개최
- 수도권 쏠림(75%) 완화 및 지방 중심의 외국인투자 확대 방안 논의

수도권 중심 일극체제에서 5극3특의 지역 중심 다극체제로 전환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유치(FDI)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부(장관 :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2.10일(수)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13개 광역시·도 및 5개 경제자유구역청, 코트라(Invest Korea), 산업단지공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제1차('24.12.26), 제2차 협의회('25.4.28)에 이은 제3차 협의회 개최

그간 국내 FDI 실적의 약 7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98~'24년, 금액 기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감안하더라도 FDI가 수도권에 편중된 측면이 있다. 이에, 이번 협의회에서는 FDI 정책을 5극3특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첨단기술과 공급망 등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에 더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또한, 전략적 유치활동(IR), 외투지역 입지 지원,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증액투자와 신속투자(신고~도착 기간 단축)를 촉진하는 등 효과적인 FDI 유치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 국내총생산(GDP)에서 수도권의 지역생산(GRDP)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2.3%

이날 협의회에서 무역투자실장은 “지역의 핵심 거점 입지를 중심으로 FDI가 유입되도록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협의회에 참석한 광역시·도 관계자들도 지역의 강점을 기반으로 하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회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업계 수요조사 등을 반영해 2026년 외국인투자 정책방향을 마련할 예정인 한편, 외국인투자 및 통상 관련 중앙-지방 협의회를 연 2회 정례적으로 지속 운영하여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상희 (044-203-4070)
		담당자	사무관	임은성 (044-203-4074)
			주무관	장재혁 (044-203-407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 고 **제3차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요**

1. 개최목적

□ **중앙-지방**의 외국인투자(FDI) 전략을 **긴밀히 연계**하여 글로벌 **산업·통상 환경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 ▲'25년 외국인투자 동향·실적 공유 및 ▲향후 외국인투자 정책방향, ▲지방정부 의견수렴 등 FDI 상호 협력방안 논의

2. 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12.10(수) 10:00~11:30, HJ 비즈니스센터 (13층, 세미나룸D)

□ **(참석)** 무역투자실장(주재), 투자정책과장, 13개 광역시·도, 경제자유구역청, KOTRA IK, 산업단지공단 등

□ **(내용)** 중앙·지방의 FDI 동향·계획 및 상호 협조요청 사항 등 공유

❶ 그간의 외국인투자 정책 평가 및 '26년 정책방향

❷ 광역시·도별 외국인투자 현황·애로사항 및 '26년 계획

< 진행 일정 >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10:00~10:05 (5')	• **모두 발언**	무역투자실장
10:05~10:10 (5')	• **'25년 외투 동향 및 '26년 정책방향**	산업부
10:10~11:00 (50')	• **시도별 외투 현황·애로사항 및 '26년 계획**	광역시·도
11:00~11:25 (25')	• **토론**	참석자 전원
11:25~11:30 (5')	• **마무리 발언**	무역투자실장